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보험약관대출 안내 강화 vs. 이자부담 완화

- 금감원은 대출절차가 편리하여 서민들이 주로 소액 대출 목적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보험약관대출이 일부 보험사의 소극적인 안내와 과도한 이자부과 등으로 인해 보험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도함.
 - '09.12월말 보험사의 가계 약관대출은 전년말 대비 6.2% 증가한 35조 7,777억원으로 총 가계 대출잔액의 59.7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약관대출 연체율은 4.2%을 기록해 부동산담보대출(0.6%)과 신용대출(2.0%)의 연체율 보다 매우 높은 수준임.
 -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 안내부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'보험계약자의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감독 방안'을 마련함.

-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약관대출 중요내용의 설명·안내를 강화하고, 약관대출 금리산정기준 명확화 및 금리산정방식 개선,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개선하는 것임.
 - 대출 시 중요사항 및 불이익사항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, 대출금액과 이자미납에 대한 주기적 안내 등 '약관대출 안내절차 표준화 방안'을 마련함.
 - 객관적인 금리산정기준 없는 일부 보험사에게는 금리산정기준을 명확히 마련토록 지도하고, 금리산정방식을 가산금리방식(예정이율+ α)으로 개선함.
 - 약관상 지급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약관대출을 선급금으로 보아 정상이자만 부과하도록 개선하고, 정상이자 미납 시 미납이자에 대해서는 원금에 가산하되 연체이자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함.

- 금감원은 대출 안내부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 상반기에 안내절차를 의무화하고, 금리산정기준 통일은 하반기에 실시한다는 계획임.
 -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험계약자 A가 약관대출 500만원을 받을 시, 1인당 연간 최소 54만원~최대 72만원의 이자부담 감소가 예상됨.

(보험계약대출 안내강화 등 개선방안 추진,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서비스국, 3/17)